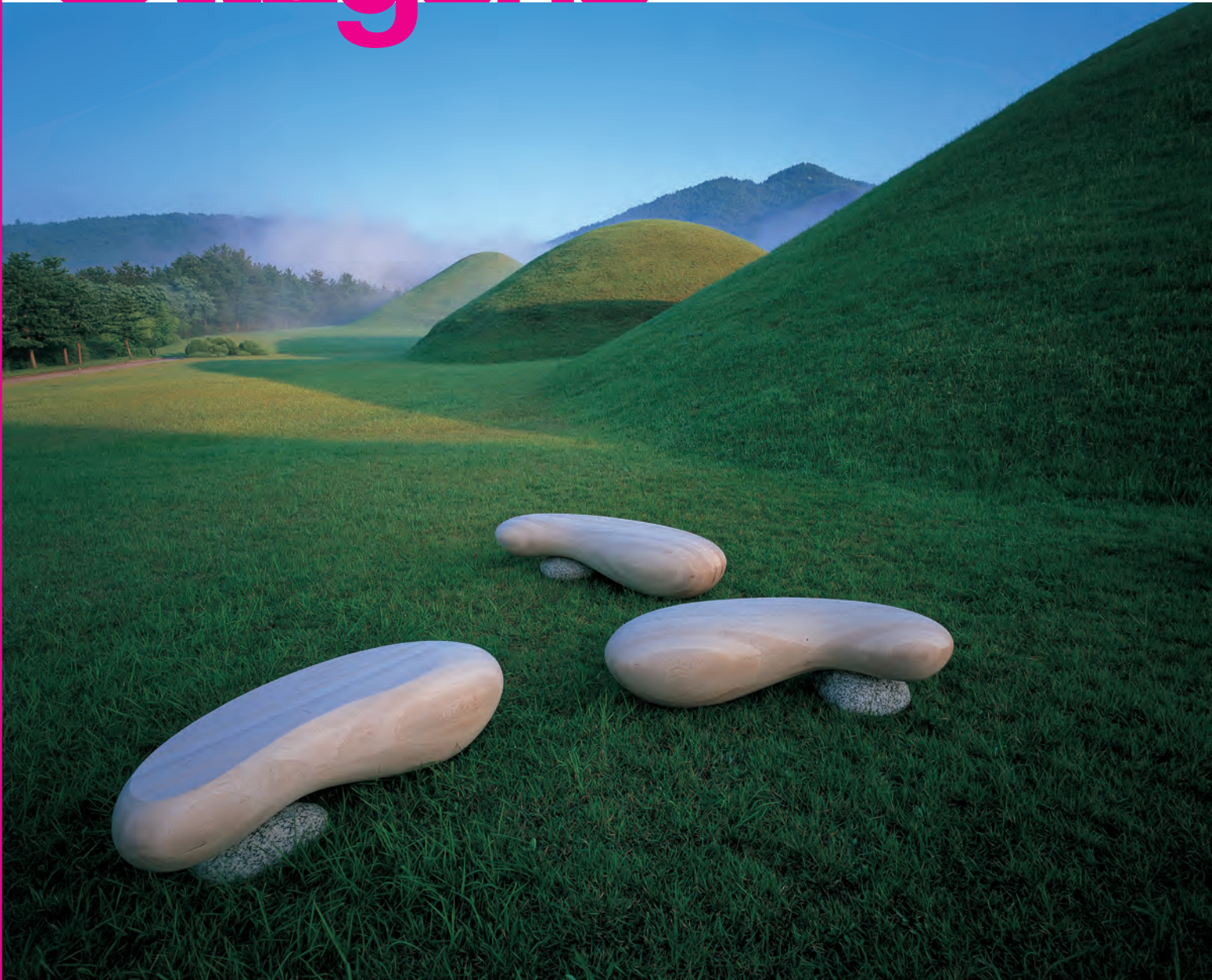




“The idyllic worlds of Byung Hoon Choi”. The work of Korean designer/sculptor Byung Hoon Choi has always straddled the fine line between art and design. His objects are not mere furnishings but works tied to dreamlike and enchanted worlds bordering on idyllic paradises. The artist clearly opposes the Western approach to understanding design: for his installations, he is inspired by the simplest adolescent experiences, like collecting insects or hunting crawfish. He gives his objects the forms of insects and animals, opposing the aridity of Western design. Critics have cited his works as naturalistic and minimalist, and these statements are confirmed by Byung Hoon Choi’s own words, although the designer is referring to highly personal versions of naturalism and minimalism. This poet of solid geometry avoids all superfluous ornamentation to draw attention to what truly counts for him: anguished abstraction from known reality and the generation of tangible formal and functional elements imbued with the tenets of Taoism and Zen philosophy. What interests Byung Hoon above all is the aesthetic aspect. Indeed, he notes that he wants to convey “natural beauty” in its purest state. He incorporates elements that may seem to be flaws, deftly transforming them into instruments that beckon the observer to embark on a real experience through direct interaction with the created object.

Simone Micheli



“최병훈의 목가적인 작품세계”. 한국의 디자이너 겸 조각가인 최병훈의 작업에는 디자인과 예술의 경계를 절묘하게 넘나드는 아름다운 선이 존재한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다. 보는 이들로 하여금 파라다이스의 목가적인 경계선상에서 몽환적이고 매혹적인 세계로 인도하는 작품이다. 이 예술가는 디자인을 이해하기 위한 전형적인 서구적인 접근방법에 대항하고 있다. 그는 어린시절 곤충채집이나 가재잡이등 가장 단순하고 유아적인 경험을 통해 영감을 얻는다. 비평가들은 그를 자연주의자, 혹은 미니멀리스트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그의 작업을 통해 확인되었다. 한편, 작가는 스스로 자연주의와 미니멀리즘에 대한 독자적인 표현방법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 완벽한 입체조형의 시인은 모든 불필요한 장식을 거부한다. 진정 그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면, 도교(道敎)와 禪 사상에 고취된 형식적이고 기능적인 요소와 현실을 직시함으로부터 오는 고통스러운 추상적 개념 등. 하지만 최병훈의 궁극적인 관심은 미학적인 것이다. 그는 가장 순수한 상태로서의 “자연적인 아름다움(Natural Beauty)” 을 전달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부유하고 있는 요소들을 하나로 통합한 후 능숙한 방법으로 그들을 변형시킨다. 이제 그가 변형시킨 요소들은 하나의 악기가 되어, 창조된 오브제와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한 생생한 예술적 경험에 동참하기를 권하며 관찰자들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